

#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

익산서동축제 성료, 시민에 빛의 힐링 선사... 백제유등·야간경관 전시 연장

'2021 익산서동축제'가 백제 유등과 야간경관 전시를 선보이며 빛으로 가득한 야간형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주최하고 (재)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진호)이 주관하는 2021년 익산서동축제가 23 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서동공원 일원에서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축제는 익산과 서동축제만의 이야기를 담은 백제유등 전시 연출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동의 탄생부터 서동 선화의 사랑 이야기와 무왕의 응지를 담아낸 다채로운 색채와 모습의 유등이 낮과 밤을



2021 익산서동축제

아우르며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백제의 이야기를 선물하였고, 해상왕국 백제의 꿈을 보여주는 금마저수지 LED 돛배와 금마 주민들이 손수 만들어 전시하는 한지등 그리고 축제장을 아름답게 밝히는 야간경관 신책로가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환기를 맞아

주말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들도 눈길을 끌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몽연 : 서동의 꿈' ▲연극협회 익산지부가 시연하는 주재연극공연 ▲마한백제문화예술포럼위원회가 주관하는 백제무왕 익산천도입궁의례식 ▲자랑스러운 무형문화재 기세매늘이 ▲축제장 광장을 짙게 채운 시립풍물단의 흥겨운 공연 ▲토요일 저녁 금마저수지를 활용한 수상실경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남녀노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또한 축제장을 찾는 이들의 다양한 꿈을 담아낼 소원 배 띄우기와 소원지 달기 체험 한류의 원류인 백제 의복을 입고 축제를 즐기는 백제 복식 체험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익산=이득훈 기자

# 환경 중심 조직개편, '관리' 집중 효과 극대화

익산시, '환경문제 해결' 2주년 맞아... 시민 만족도 높아

익산시가 지역의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중심'으로 조직 개편 후 환경 관리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환경 정책 업무와 인허가, 지도단속, 환경 사범을 추진하는 환경관리과로 분리한 지 올해 2주년을 맞이하며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분야 인허가, 지도 단속, 환경 사범 업무 등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을 설치해 분양별 단속 실시, 강력한 사범 처리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 개선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가장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는 악취를 꼽을 수 있다. 「익산악취2」 접수된 민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매년 악취 발생이 절정을 이르는 8월을 기준으로 악취 발생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2019년 1,387건, ▲2020년 1,611건이었던 민원이 ▲올해 8월에는 850여 건에 그친 것이다. 5월에 실시한 악취저감 행정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55%가 악취가 줄었다고 답하고 있어, 악취저감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결실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분야에서는 하절기 악취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가축사육 농가에 대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했다. 한

편 346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 추진, 위반농가 등 76개소를 적발해 가축분뇨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익산시 환경문제의 큰 화두였던 장점마을, 남산 폐석산과 같은 환경 이슈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기?폐수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서는 연초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355개소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2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강력한 지도점검 업무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후된 대기배출시설을 교체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현재까지 43개업체 43억7,300만원을 집행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 군산시,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사업 적극 추진

군산에서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율 청결봉사대 운영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들은 주택가와 공터, 골목길 등에 불법쓰레기가 있는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불법쓰레기가 더욱 쌓이는 악순환을 예방하고자 군산에서 고심 끝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존 관에서 주도하는 청소체계를 벗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활동을 통해 청결하고 깨끗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사업 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신청한 후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대상 마을을 선정했다. 자율적으로 마을 청소의 날을 지정, 환경정비 및 청소화

등을 하고 있으며 현재 40여개 마을이 참여 중이다. 환경정비와 청소활동 시 쓰레기봉투와 집게 등 청소용품을 지원해주고 있다.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은 읍면동별로 청소봉사를 구성,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환경정비와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청소봉사회 활동 시 자원봉사시간 실적을 인정해 주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의료급여사제관리사업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상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 '평범한 일상을 꿈꾸며'

익산시 김미선 의료급여관리사, 보건복지부 공모전 개인부분 대상

익산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의료급여사제관리사업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상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시는 29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1년 의료급여사제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개인부분'에서 김미선 의료급여관리사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제관리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목적으로 수급권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건강상담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말한다.

올해 개인부분 대상으로 선정된 김미선 의료급여관리사는 '평범한 일상을 꿈꾸며'란 제목으로 요양병원에 속

식목적으로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김 O, 남/58)가 일상생활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급여사제관리과정을 생생하게 담아 좋은 평가를 얻었다.

익산시 의료급여관리사(6인)은 장기입원 사제관리를 통하여 대상자의 질병 및 건강상태, 의료이용 행태 및 현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원 및 요구도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수행하는 등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익산시는 2020년에는 의료급여사제관리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라북도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 강임준 군산시장, 꿈과 진로 토크콘서트 가져

강임준 군산시장이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에서 군산중앙고등학교 학생들과 꿈과 진로에 관한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지난 28일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기 전 BTS의 다이너미트 노래를 감상하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반짝임이 있기에 각자의 개성을 바탕으로 꿈을 만들어 가야한다"며 시는 꿈을 키우는 공간 조성하고 진로찾기 프로그램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꿈·진로에 대해 궁금한점으로 ▲꿈과 현실의 벽 ▲진로 결정시 가장 중요한 요인 ▲꿈을 찾기 위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등이었고 그 밖에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강시장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경험과 독서의 중요성 등을 전하며 학생들의 희망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소통했다.

강 시장은 학생들에게 "학창시절은 항상 그리워하게 되는 시절"이라며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지역 소식통

군산시, 복지위기가구 집중발굴 기간 운영

군산시는 내년 2월까지 겨울철을 대비해 복지 위기가구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겨울철은 건설 휴지기 및 농한기 등으로 계절형 실업과 더불어 한파, 대의 활동 감소로 인해 취약가구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이 가중되는 시기로 취약계층의 경우 겨울나기는 더욱더 힘들어 수 밖에 없다.

시는 희망복지지원단 27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복지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한 단전·단수·건보료 체납자, 1인 가구 중 위기 정도가 심화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상담을 실시해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10곳 적발

익산시가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10곳을 적발해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태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허가받은 장소 외 보관 변경 허가 미이행,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 미입력 등이다.

위반 사업장 10개소 중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허가받은 장소 외에 보관 변경 허가 미이행 등 사범 조치 대상 4개소는 환경특사경계에서 입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위반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조지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달 관내 폐기물관리법 위반 우려 사업장 22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다.

이번 점검은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과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됐으며 방지폐기물 발생 여부,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폐기물 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익산=이득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